일본 현지 동향 및 우수 행정사례

2021. 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사무소)

목 차

Ⅰ. 일본 현지동향

1. 노숙자, 코로나 백신 접종 본격화 ····· 1
2. 日 내각부 2021년도 경제재정백서 공표 ····· 2
3. 日, 교차접종 및 3차 접종 승인 ····· 3

Ⅱ. 관광 동향

1. 한일 관광교류 현황 ····· 4
2. 관광시장 동향 ····· 5
3. KTO 도쿄지사 코로나 대응사업 전개 ····· 7

Ⅲ. 지역활성화 우수 사례

〔**(주제)** 노동자협동조합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1. 모두 "해보고 싶다"가 이루어지는 장소 ····· 8
2.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 만들기 ····· 13
3. 사람, 일, 협력으로 이어지는 지역 ····· 17
4. 지역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 21
5. 청년 주체의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 25
6. 이주해 온 젊은이들에 의한 공동 농업 ····· 29

Ⅰ. 일본 현지동향

※ 자료출처 : 주일대사관, 현지 언론보도 등

1 노숙자, 코로나 백신 접종 본격화.....지원단체 통해 호소하는 지자체

(21. 9.27. 지지 통신)

o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노숙 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접종에 나서고 있음.

- 정해진 주소가 없어 접종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지원단체와 협력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집단접종 등으로 연결시키고 있음.

o 도쿄도 타이토구는 8월 하순부터 지원단체를 통해서 주지. 9월 10, 11일 죠후쿠 노동・복지센터에서 1차 집단접종을 실시했으며, 희망자는 양일간에 동센터로 와서 정리권을 배포 받았는데, 신분증 등 본인 확인서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고 접종 당일 확인하였음.

o 도쿄도 토요시마구는 10월 30일에 1회째의 접종을 실시함.
지원단체「TENOHASI(테노하시)」등과 협력해, 10. 23일 히가시이케부쿠로 중앙공원에서의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임.
100명 정도 접종을 상정하고 있으며, 구청 담당자는 “백신 부족으로 대응이 늦어졌다. 배식 받으러 온 사람을 접종으로 유도하고 있다」라고 함”.

o 요코하마시에서는 8월 3~5일 시청내에서, 9월 10일에는 나카구 내에 건강복지교류센터에서 노숙자 전용 접종 상담회를 개최하였음.
희망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접종권을 발행하고 예약 절차를 밟아 10월 말까지 30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임.

o 후생노동성은 4월, 지원단체와 협력해 나가면서 접종을 주지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하였으며, 7월에는 본인 확인서류가 없어도 지자체의 재량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요구하였음.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1월 시점에 전국 노숙자 수는 3,824명으로 추산함.

2 日 내각부 2021년도 경제재정백서 공표

o 日 내각부는 9. 24일 2021년도 경제재정보고(경제재정백서)를 공표했으며, 동 백서를 통해 2030년도 에너지수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층 더 에너지 절약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강조함.

- 과거 6년의 에너지효율 개선 속도(연율 2.0%)가 이어진다고 가정한 경우, 2030년도의 에너지수요는 약 3억 1400만kL가 된다고 지적, 2030년도의 목표 달성에는 11% 정도의 추가적 수요 억제 및 효율화가 필요해질 것으로 언급

< 경제재정백서 포인트 >

▶ 국내경기는 '회복국면도 추세는 완만', 기업채무는 평상시보다 27조엔 이상 팽창
▶ 민관 디지털화 지체가 중점과제, 특히 중소기업 지체
▶ 높은 법인세 등 기업의 '6중고'는 일부 해결되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과제는 여전
▶ 탈탄소를 위한 에너지절약 대응 가속이 필요
▶ 사회인 '리커런트 교육(재교육)' 강화를 요청

- 이는 연율 베이스로 약 3%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되는바, 현행 속도보다 가속화 필요

- 기업, 운수, 가정 등 각 부문에서 대규모적인 에너지절약 대응이 요구되는바,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기기에 대한 개보수·교환을 추진 ▲주택의 단열개보수 추진 ▲운수부문에 대해서는 트럭수송의 효율화나 차량 공유 보급 등을 위해 지원

- 탈탄소와 경제성장의 양립을 위해서는 발전비용의 억제와 기술혁신을 한층 더 앞으로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카본프라이싱이나 국경탄소조정조치를 예시로 들고, 이러한 논의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o 백서는 격심해지는 미중대립 등을 두고 지역분쟁이나 국가 간 대립으로 무역이나 투자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안보관점에서도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고 지적함.

- 2020년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내에서 마스크, 의료품 등이 품귀현상을 빚었고, 2021년은 중국이나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에 빠진 가운데 동남아의 감염확산으로 자동차 부품의 조달이 지체되어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폭 감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짐.

- 공급망 재검토에는 새로운 거래처 개척에 시간과 수고가 들며, 특히 중견·중소 기업에서 지체감이 확연히 관찰

o 백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과 경제회복 양립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증명서 활용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함.

- 아울러, 코로나 사태 종식 후를 내다보며 디지털 분야나 의료간병 등에서의 인력부족에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

- 동 분야에 대한 이직·취직에는 전문적 지식이 불가결한 바, 직업훈련에 대한 급부금 이용 촉진이나 근무하기 좋은 직장환경 정비 등을 요구

3 日, **교차접종 및 3차 접종 승인**

o 후생노동성은 9.17자 후생과학심의회 예방접종 백신분과회에서 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함.

- 1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 문제 등으로 1차 접종시와 동일한 백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도 교차 접종을 허용할 예정

- 同省은 교차접종 허용을 위해 가까운 시일내 에방접종 실시 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

o 동 분과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부스터 접종)을 日 국내에서 실시할 방침도 승인됨.

- 접종 간격은 2차 접종 완료 후 8개월 이상 지난 뒤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전문가들은 동 간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어 3차 접종 시작 시기는 유보

- 日정부는 희망자 대상 백신접종을 2021.11월까지 완료할 방침으로, 2021. 12월경 의료종사자를 중심으로 3차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 존재

Ⅱ. 관광 동향

※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1 한일 관광교류 현황

□ 방한 외래객 통계

연도	방한 외래객		방한 일본인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점유율(%)
2015	13,231,651	-6.8	1,837,782	-19.4	13.9
2016	17,241,823	30.3	2,297,884	25.0	13.3
2017	13,326,690	-22.7	2,311,242	0.6	17.3
2018	15,346,879	15.1	2,948,527	27.6	19.2
2019	17,502,623	14.0	3,271,706	11.0	18.7
2020	2,519,118	-85.6	430,742	-86.8	17.1
2021. 1-8월	600,279	-73.5	10,256	-97.6	1.7
2021. 8월	97,087	41.1	2,258	77.1	2.3

□ 방일 외래객 통계

연도	방일 외래객		방일 한국인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점유율(%)
2015	19,737,409	47.1	4,002,095	45.3	20.3
2016	24,039,053	21.8	5,090,302	27.2	21.2
2017	28,691,073	19.3	7,140,438	40.3	24.9
2018	31,191,856	8.7	7,538,952	5.6	24.2
2019	31,882,049	2.2	5,584,597	-25.9	17.5
2020	4,115,900	-87.1	487,900	-91.3	11.9
2021. 1-8월*	173,300	-95.6	11,700	-97.6	6.7
2021. 8월*	25,900	199.1	1,600	113.6	6.1

* 잠정치

□ 한일관광교류 통계

연도	방한 일본인		방일 한국인		양국 교류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2015	1,837,782	-19.4	4,002,095	45.3	5,839,877	16.0
2016	2,297,884	25.0	5,090,302	27.2	7,388,186	26.5
2017	2,311,242	0.6	7,140,438	40.3	9,451,680	27.9
2018	2,948,527	27.6	7,538,952	5.6	10,487,479	11.0
2019	3,271,706	11.0	5,584,597	-25.9	8,856,303	-15.6
2020	430,742	-86.8	487,900	-91.3	918,642	-88.4
2021. 1-8월*	10,256	-97.6	11,700	-97.6	21,956	-97.5
2021. 8월*	2,258	77.1	1,600	113.6	3,858	195.3

2 관광시장 동향

□ 일본 코로나/백신 중심 시장 동향

◆ 2021년 8월 방일객 수 25,900명 (전년 동월 대비 199.1%)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방일 외래객 수 저조
- 2021년 8월 방일한국인 수 1,600명 (전년 동월 대비 113.6%)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9개 지자체 긴급사태발령 기간연장 중(9.13~9.30), 감염자 수는 안정세 진입

-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 일본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67명(9.21 기준)으로 도쿄올림픽 개최 전인 지난 1,504명(7.12 기준) 이후 처음으로 2,000명 아래로 감소(9.29 기준 1,982명)
- 9월 말 이후 긴급사태발령 전면 해제

* 긴급사태선언 발령 지역 : 19개 지역(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시즈오카, 교토,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오키나와, 홋카이도, 기후, 아이치, 미에, 시가, 히로시마)

*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지역 : 8개 지역(후쿠시마, 이시카와, 카가와, 구마모토, 미야자키, 가고시마, 미야기, 오카야마)

※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중점조치 차이점

구 분	긴급사태선언	만연방지 중점조치
대상지역	도도부현	정부가 대상으로 한 지역 중 해당 지자체장이 세부적으로 재지정
대응	사업자 대상 휴업, 영업시간 단축 요청·명령, 외출자숙요청	사업자 대상 영업 시간단축 요청·명령
벌칙	명령에 위반한 사업자 대상 30만엔 이하 과태료	명령에 위반한 사업자 대상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 일본 후생노동성, 백신 '부스터샷' 도입 추진 중

- 부스터샷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접종 4분기 시행계획 발표 예정
- 2차 백신접종 종료예정인 11월 이후,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및 체계 구체화 목표

○ 9.28일 기준, 전국 백신 접종인원 1회 접종자 88,207,949명(인구 69.6%), 2회 접종자 74,369,435명(인구 58.7%)

□ 일본 아웃바운드 및 방한시장 동향

◆ 2021년 8월 일본인 출국자 수 66,100명 (전년 대비 78.0%) * 잠정치

항공사	조치	내용
일본항공	운항중단	한일 전 노선 운항중단(~ '21.10.30)
대한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9.30)
	감편운항	나리타-인천(매일 1편 운항) 간사이-인천(~ '21.10.30, 주 2편(수,목) 운항) 나고야-인천(~ '21.10.30, 주 2편(수,토) 운항) 후쿠오카-인천(~ '21.9.4 운항)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10.30)
	감편운항	나리타-인천(매일 1편 운항, 9.13, 9.19, 9.21, 9.28 운휴) 간사이-인천(~ '21.10.30, 주 5편(월,화,목,금,일) 운항, 9.13, 9.16, 9.20, 9.21, 9.23, 9.27, 9.30 운휴) 나고야-인천(~ '21.10.30, 주 1편(금) 운항, 9.17, 9.24 운휴) 후쿠오카-인천(11.5부터 주 1편(금) 운항 재개 예정)
에어서울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9.30)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10.30)
에어부산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10.30)
진에어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9.30) 간사이-인천('21.10.1~ '21.10.30, 주 1편(월) 운항) 후쿠오카-인천(~ '21.9.30, 주 1편(수) 운항)
피치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10.31)
ZIPAIR	신규취항	나리타-인천 ('20.10.16~, 주 3편(일, 화, 금) 운항)
제주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9.30)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 '21.9.30 주 1편(토) 운항) 간사이-인천 (~ '21.10.30 주 1편(일) 운항, 10.3, 10.17, 10.24 운휴)

○ 관광목적 신규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행업계 지원 및 수용태세 개선 중심의 정책 운영

○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 조치 지속(비즈니스 트랙 포함)

○ 입국자 전원 PCR 검사판정서 제출 및 공항내 PCR 검사 후 입국허가

○ 주요여행사(JTB 등) 해외여행상품 판매 중지(11월 이후 출발분 판매 중)

○ JATA(일본여행업협회) 아웃바운드 예측(7.28 발표 로드맵)

- 2021.12월부터 일부 국가와 인적교류 재개 목표
  (전자백신여권 도입, 백신접종자 대상 입국후 14일 격리완화 등 요청)
- 관광교류재개 우선검토 국가/지역 : 싱가폴, 영국, 스페인, 캐나다, 하와이

  * 한국은 2단계로 2021 연말에 시범 추진 계획

3 KTO 도쿄지사 코로나 대응사업 전개

□ OTA(온라인 여행사) 방한 홍보 캠페인

○ 라쿠텐트래블 등 4개사(2021.6월~2022.3월)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이벤트 한국관광 가을축제 2021' 개최(10~11월)

○ 한국 뮤지컬의 매력 탐방 : K-뮤지컬 상영회, 뮤지컬배우 토크쇼 등(10.29~30)

○ 코리아페스타 : 현지 유명인 토크쇼, 랜선여행 상영회, 기내식 체험 등(11.13~14)

○ 제4회 한국여행검정, JR야마노테선 래핑광고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실시

□ 한국 우수 문화 소개전(문화원, 테마 : 한국의 미·식·락)(7.22~9.28)

○ 문화원, 공사, 콘진원, AT 공동 운영

□ 한국관광 100선 특별페이지 제작 및 홍보(9.1~10.31)

○ 한국관광 100선을 소개하는 특별페이지 운영 및 관련 미니 여행검정 실시

Ⅲ. 지역활성화 우수 사례

※ 자료출처 :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 일본의 (재)지역활성화센터가 발간한(2021. 9.) ‘지역활성화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지자체 시책에 참고하고자 함.

(주제) 노동자협동조합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1 모두 “해보고 싶다”가 이루어지는 장소
- 함께 만드는 지역의 장소 ‘화기애애’ -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시**(札幌市)

삿포로시 키타구 시노로는 삿포로역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JR 학원도시선으로 약 20분, 자연이 풍요로운 주택지다. 시노로역 서쪽 출구는 재개발로 인해 현대적인 경관이 되었지만 아직 오래된 창고들이 남아 있는 동쪽 출구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작은 커뮤니티・카페인 ‘시노로 마을 조성 테라스 화기애애’가 있다.

시노로의 지역회사인 키다 제분의 가루를 사용한 수타 우동이나 케익 등 매일 정성스러운 수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 필요한 것은 스스로

2010년 4월, 노동자협동조합은 삿포로시 시노로 커뮤니티센터 (이하, 커뮤센)의 지정 관리자가 되었다. 우리들은 근로자・이용자・지역과 협동하는 ‘협동노동’이란 근로방식을 통해 이용자・시민이 주체적인 관계를 낳고, 마을 조성의 거점이 되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다.

2014년 6월 커뮤센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지역 살롱인 ‘연대 살롱’ 중에서 철도 고가와 구획 정리, 도로확충 등 공공사업을 통해 시노로 마을이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었다.

‘10년 후에는 어떤 마을이 되어 있을까?’, ‘모르는 사이에 익숙했던 거리가 변해간다는 건 왠지 쓸쓸하다’,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킨 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등의 대화를 계기로, 커뮤센의 이용자들과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마을에 대한 모두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다. 어떤 마을에 살고 싶은지에 대해 커뮤센의 문화제와 상점가 축제에서 설문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설문조사를 집약하자면 ①모두가 부담없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 ②밥을 먹을 수 있는 가게를 원함 ③역사를 전하는 거점 필요—라는 세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다. 마을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 가자, 그것이 ‘화기애애’ 설립의 동기가 되었다.

○ 차례와 역할이 있는 곳

행정 간담회, 동네 걷기, 여러 사람(보건사, 병원의 케어워커, 사회복지협의회 담당자 등)의 이야기를 듣거나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과 기운이 있어도 활약할 장소가 없는 고령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 육아로 고민하는 아이 엄마와 같은 다양한 만남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장소, 그런 곳이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수제 우동. 육수도 홋카이도産

중심이 될 사업으로 음식을 생각하여 지역의 제분 공장에 우동 만들기를 배우러 갔다. 우동을 손수 만들기 위해서는 가루를 반죽하고 그 반죽을 정리, 밟기, 늘리기, 자르기 등의 과정이 있다. 이 공정 속에서 사람은 각각 잘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동 만들기는 개개인의 특기를 발휘하여 협력할 수 있는 작업으로, 어떤 사람이든 역할을 가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사업의 중심 기둥으로 삼고 있다.

○ 지역의 응원을 받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공시설 이외에도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지역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각은 있어도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불안을 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때 큰 힘이 되어 준 것이, 이 아이디어에 동참해 준 지역 주민들이다.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출자해준 분, 비품을 제공해준 분, 화단을 만들어준 분 등 여러 협력을 받았다.

이렇게 2017년 5월에 '시노로 마을 조성 테라스 화기애애'가 오픈했다. 현재 조합원은 20대부터 50대까지의 7명. 물론 지역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 그 중에서도 지역의 고령자로 이루어진 '시노로 쵸보라회(會)'에서는 설거지나 조리 보조, 접객, 풀베기와 환경 정비, 제설 등의 자원봉사자로서 매일 운영을 크게 지원해 주고 있다.

○ 넓어지는 활동

'화기애애'는 지역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에 의한 워크숍이나 마르쉐, 아날로그 게임 모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독서 모임 등은 '여기서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지역주민의 기획을 반영해 실현된 것이다.

일요일에 매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포장마차’도, ‘아이가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벤트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야생초 튀김, 전병 만들기, 떡 반죽, 눈 놀이 등, 매회 취향에 맞춘 바깥놀이 광장이 펼쳐지고 있다.



디저트 상품



홋카이도 의료대학의 선생님과 매월 진행하는 ‘당사자 연구’ 모임

7명의 조합원 중 5명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화기애애는 ‘삿포로시 장애인 협동사업소’(※)의 지정을 받고 있다. 각각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오해나 편견에 의해 트러블이 발생하는 일도 있지만 화기애애에서는 ‘곤란한 일을 테이크아웃’ 할 수 없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 날 안에 ‘순조 회의’(오늘도 순조롭게 문제 있는 회의의 약어)를 열어, 모두 함께 의논한다. 모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어느새 문제였던 것이 우스갯소리가 되기도 한다.

장애가 있는 동료가 개최하고 있는 ‘정신질환과 함께 사는 모임’, ‘당사자 연구’ 등 본인 삶의 어려움이나 곤란했던 일을 발신하는 이벤트에 대하여 같은 고민을 가진 분이나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지역 분들의 반응이 많다.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시작된 ‘화기애애’.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장소이기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 사는 동료들과 함께 마을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여러분 꼭 ‘화기애애’로 놀러오세요.

※ 삿포로시 장애인 협동사업소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의 형태를 추진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취업 촉진과 사회적,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삿포로시 자체 사업.

삿포로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업을 하는 운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②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 만들기
- 이재민 지원부터 임업 활성화까지 -

미야기현(宮城県) **토메시**(登米市)

○ 지진재해 부흥의 중장기적 역할을

토메 지역 복지사업소가 있는 토메시는 미야기현 북부에 위치하고 2005년에 9개 마을이 합병해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인구는 79,032명으로 10년간 약 8,000명이 감소했다. 고령화율은 32.9%로, 특히 후술할 중산간 지역의 마스부치 지구는 42.2%정도이다.

2012년부터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역에서 활동해 왔지만, 피해 연안부는 지진 재해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재해 직후에 외부에서 들어온 많은 지원 단체나 NPO 등은 대부분이 철수했다. 그러한 단체는 긴급적인 1차 지원으로서의 역할은 완수했지만,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와 성과는 남기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에도 노동자협동조합이 임하는 일 부흥・지역 만들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재민의 일 부흥을 위해 시작

토메 지역 복지사업소(이하, 토메 사업소)는 지진재해 후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와 센터 사업단이 창설한 동북 부흥본부의 제1호 사업장이다. 2011년 10월부터 창업형 인재육성 사업(긴급고용 창출사업)의 틀을 활용하고 공생형 복지의 담당자 만들기와 미나미산리쿠 마을의 재해 구직자의 취업 지원 2가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 부흥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20대부터 70대의 조합원이 복지, 임업, 취업지원, 생활 곤궁자의 생활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는 토메 사업소가 3개로 분할되어 있다.

현재 토메 사업소의 업무는 표와 같다.

부 문 명	사업내용	개설연월	인원
해피데이	고령자 데이[1]	2013. 1월	9명
코코로 리플(RIPL[2])	장애인 취로	2014. 1월	9명
폿카포카	방과후 등 데이	2014. 1월	3명
REBORN FOREST토메	임업	2014. 10월	8명
SKETCHA	생활지원	2017. 8월	-

거점은 다음 4개로 확대되고 있다.

(1) 요네야마초(米山町) 젠노지(善王寺) 지구에서는 폐교된 유치원을 활용한 공생형 복지시설이 있다. 장애아의 방과 후 데이 서비스, 고령자의 데이 서비스, 장애인의 생활 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2) 요네야마초(米山町) 니시노(西野) 지구에서는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취업계속지원 B형), 농촌 카페에서 야채 재배와 반찬, 도시락 제조·판매 등의 일을 하고 있다.

(3) 도심 지역의 하사마초(迫町) 사누마(佐沼) 지구에서는 생활 곤궁자가 행정이나 시민의 의뢰를 받아 쓰레기 집 정리와 농작업 지원 등에 종사하는 생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산간부에 해당하는 도와초(東和町) 마스부치(鱒淵) 지구에서는 8명의 멤버가 임업을 하고 있다.

토메 사업소에는 갖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동료가 일하고 있다. 장애아를 키우는 미혼모, 고등학교 시험에 실패했지만 보람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젊은이 등이다. 방과 후 데이 서비스나 생활지원 사업은 이러한 일하는 사람들의 배경이나 신변의 곤란을 일로 바꾸어 가려는 대처에서부터 생겨났다.

---

1) 데이 서비스의 줄임말. 재택 노인을 양로원 등에 보내어 목욕이나 간호·식사 등을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2) 일본 전국의 지자체와 민간기업에서 설립한 지역활성화센터가 1992년 5월에 개설한 '고향정보 플라자'(각지의 관광과 산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정보발신 센터)

그러나 동료와 협력하며 일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타협해 나가야 한다.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고생이 따르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이 근로방식의 의미와 가치가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 모델 지구 'REBORN FOREST 토메'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전국에 4개소의 모델 지구를 만들어 산촌의 생활과 실제의 일로 배우는 임업 부흥에 임해 왔다. 그 하나가 마스부치 지구로, REBORN FOREST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임업의 시작은 지역 주민에게 산을 맡기기 위한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전원이 아마추어에 기술도 기개도 없는 상태였기에 좀처럼 산을 맡길 수 없었지만, 지역에서 경작 포기 토지의 풀베기와 통행 등에 방해가 되는 절의 지장목을 제거하는 일을 받아, 그 결과를 '임업 통신'으로 발행해 지역의 모든 가구에 손수 배포해 알렸다.

이렇게 조금씩 주민과 이어져, 축제의 일손 도움으로 말을 걸어주거나 작은 일을 받거나 하면서 지역의 동료로 받아들여졌다.

2016년부터는 총무성의 '작은 거점사업'에 착수하고 그 중에서 삼림학원(듣기), 대나무 세공 강좌, 지역의 미래 예측 워크숍, 작은 거점 포럼 등을 실시해 지역에서 스스로 역할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임업의 비용 계산을 하고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지역을 위한 산 만들기와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일은 주민과 함께 지역을 지켜나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는 주민과 노동자협동조합이 함께 마스부치 지역 주민자치 추진협의회를 창설하고,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센다이시 아동관의 아이들에게 농촌에서의 놀이와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데이 캠프, 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야채를 재배하는 밭 교실 등에 임하고 있다.

데이 캠프는 참가한 아이들의 반응에 의해 보호자들도 ‘본인도 토메에 가보고 싶다’라거나, ‘등교하지 않으려던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등의 감상이 전해져, 부모와 아이가 참여하는 ‘논 학교(田んぼの楽校[3])’로 발전하고 있다.



정월 장식 만들기



논 학교

밭 교실에서는 SKETCHA와 연계하여 은둔형 외톨이였던 젊은이들도 참가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을 되찾아 가고, 그 변화를 주민들도 활동의 보람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2021년 8월에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개시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3) 예로부터 농사를 지으며 형성되어 온 논과 수로, 연못, 야산 등을 놀이와 배움의 장으로 활용하는 환경교육의 총칭

3 사람, 일, 협력으로 이어지는 지역
- 데이 서비스부터 이재민 지원, 발전(發電)사업도 -

사이타마현(埼玉県) **후지미노시**(ふじみ野市)

○ 지역 밀착형 데이 서비스 소라마메’의 발자취

지역 밀착형 데이 서비스 ‘소라마메’는 사이타마현 후지미노시 가미후쿠오카역에서 조금 떨어진 농지가 남아있는 장소에 있다.

부지 내에서 무농약 채소를 기르고 채소 손질 등의 농사일을 생활동작 훈련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키운 채소는 소라마메 런치로서 점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채소가 오늘의 식사가 된다’며 즐거워한다.

후지미노시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아동보육의 지정 관리자로 위탁을 받아 당시 시내의 보육원 등에서 일하고 있던 시마부쿠로 토시코씨(현 소라마메 소장) 등이 설명회에 참가하여 준비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후쿠시마에서부터 달랑 옷만 입은 채로 피난해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시마부쿠로씨와 관계자들은 구원물자와 그 제공원을 찾았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명회에서 알게 된 사람도 가세하여 닌진 요양원을 설립하고 이재민 가족과 접하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재민과의 교류회를 계속했다. 그때, ‘숨이 막힐 것 같아... 밭일을 하고 싶다’, ‘흙이 그립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공무원 주택에 피난해 온 남성이 문득 흘린 한마디였다고 한다.
후쿠시마 이재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밭을 빌려 이재민에게 배우면서 농사를 시작했다.



풍부한 수확에 미소짓는 이용자

이 활동을 계속함에 따라, 재해 후 후쿠시마에 귀환하는 사람이나 고령으로 일을 은퇴하는 동료가 나왔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닌진 요양원의 활동을 계속하려면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후쿠시마의 이재민은 물론 현지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는 기운이 높아져 갔다.

'자신의 부모를 맡기고 싶은 데이 서비스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자' 라는 생각이 활동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2012년, 데이 서비스 '소라마메' 를 개소했다. 현재는 농사를 도입한 케어가 정착되었다. 시마부쿠로 소장은 사진 촬영을 하면서 "실내에서의 웃는 얼굴보다 밖(농사일의 생활동작훈련)에서의 웃는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한다.

'소라마메' 는 자치회 회관 옆에 있다. 2017년에 지역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살롱을 열었다. 자치회 등 집회 후에 문득 들르는 지역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중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라는 흐름이 되어 지역의 고충 상담을 받고 대화하게 되었다.

배수공사와 풀베기를 도와주는 지역 주민도 있고, 자갈을 깔아주는 소라마메 이용자의 가족도 있다. 또한, 부지의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무농약 야채를 사용한 소라마메 런치를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다.

소라마메 살롱에는 밭 경작 계획표가 붙어 있어 지금 무엇을 기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조리담당 나카지마씨는 “즉석에서 채취한 무농약 식재료를 요리해 이용자의 점심으로 대접할 수 있어 즐겁다.
처음에는 갓 딴 야채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에 고생했다. 지금은 제철 야채를 도입한 식사 만들기가 증가했다” 라고 이야기한다. 아침 모임 전에는 소라마메 정원에서 이용자와 함께 수확한 매실주스가 제공된다.

○ 지역 안에서 ‘소라마메’ 의 ‘역할’

‘소라마메’ 는 미나미소마(南相馬)의 이재민과 지역 주민을 포함해 19명이 일하는 대가족이 되었다. 곤란한 일의 이야기로 시작해 은둔형 외톨이였던 사람의 채용으로 이어진 적도 있다.
일하는 사람과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만이 있는 장소가 아닌, 지역 주민들도 들르는 살롱도 있다. 이재민과의 교류회에서 시작된 데이서비스는 지자체 및 지역 사람과 연결되어 지역의 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었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


시마부쿠로 소장(좌)과 농작업 하는 이용자

후쿠시마에서 피난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원전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한 동료들이 ‘원전에 의지하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고 싶다’ 는 생각으로 2020년 3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야채 뿐만 아니라 전기도 자급할 수 있게 되어 발전 사업에도 임하고 있다. 파워 컨디셔너도 설치해 긴급 시 지역의 전원 기지가 되어 우물물도 이용할 수 있다.

데이 서비스 설립 당시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당시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금을 포함한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후쿠시마의 이재민 중에서도 협력자가 나타나 "우리는 수확한 야채를 선물하는 정도 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무척 기뻐해 주셔서" 라며, 지금도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돌봄 사업소를 둘러싼 환경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라마메' 에서는 전원이 경영개선을 위한 논의를 한다. "좋은 서비스는 사업 운영에서는 당연하다.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싶고, 우리도 좋은 것을 먹고 싶다." 앞으로도 소라마메에서 일하는 전원이 대화를 지속하면서 수익을 늘리는 아이디어도 함께 논의해 나가고 싶다.

○ 모두가 실현하는 근무 형태

일하는 동료의 평균 연령은 대략 50세 전후. 소장은 60대, 활동자는 50대~70대, 소라마메의 일하는 방식에 공감해 응모해 준 사람은 30대.

각각 지금까지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근무형태를 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소라마메를 '피라미드가 아닌 둥근 사회' 라고 형용하기도 했다.

시마부쿠로씨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0년. 노동자협동조합과 만난 지 10년. 지금 노동자협동조합법이 생겨 우리와 같은 보통의 주부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고 말했다.

④ 지역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 등교거부 · 은둔형 외톨이에서 창업 -

도쿄도(東京都) **신주쿠구**(新宿区)

○ 사라진 115만명

지역에 살고있고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지역의 일원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저쪽 집 아들, 집에만 있는 것 같아,” “저기 집 딸, 일도 안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는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사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2002년, ‘사라진 100만 명’이라는 보도 프로그램이 영국 BBC에서 방영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은둔생활 중인 사람의 수, 이 숫자는 과장이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 은둔생활 중인 사람은 115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 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 유효한 서포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간 가와사키시 노보리토 흉기난동 사건이나 전 농림수산 사무차관 장남 살해 사건 등, 은둔형 외톨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우리에게도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

○ 대등한 대화로 만드는 회사

440Hz(도쿄도 신주쿠구)는 등교 거부・은둔형 외톨이 경험자가 2010년에 창업한 사회적 기업이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보통 정도의 작은 회사지만 특징은 사장, 이사, 직원 사이에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대등한 대화로 운영되는 곳이다.

일하는 사람은 전원, 후술하는 NPO 법인 TDU・테키센대학(도쿄도 신주쿠구, 이하, ‘테키센대학’)의 졸업생. 테키센대학에서 길러 온 문화가 회사의 문화를 지탱하고 있다.



440Hz**의 미팅**

처음에는 테키센대학의 고문 등에게 일을 받아 서서히 입소문으로 의뢰가 증가해 현재는 영상・디자인・WEB 사이트 제작 등으로 업무가 확대되어 설립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학생이 운영하고 마음껏 배우는 대학

테키센대학은 등교 거부・히키코모리 경험자와 프리 스쿨[4]의 직원이 설립한 ‘데모크라틱 대학’이다. 학생은 직원과 함께 맞춤 커리큘럼을 만든다. 필수과목은 존재하지 않고, 무엇을 배워도 좋고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몇 년을 재적해도 괜찮다.

현재 테키센 대학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등의 어학, 철학・사회학, 영상, 연극 등 폭넓은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학생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 운영은 일반 대학과 같이 이사회와 교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직원의 운영회의에서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의논하여 결정한다. 이곳에서는 매일의 스케줄 및 강좌 존속과 강사의 인사까지 대학에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한다.

4) 등교를 거부하는 초중고생이 일반 학교 이외에서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은 테키센대학을 ‘스스로 시작하는 배움의 장’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440Hz의 멤버도 학창 시절에 테키센대학에서 본인들이 배우는 장소를 스스로 운영한다는 경험을 해 왔다.

테키센대학을 졸업할 때, 동료와 협력하면서 자신들이 배워 온 것을 살려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440Hz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 배우는 사람 스스로가 시작하는 장소를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의 코무라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과 440Hz의 멤버

440Hz와 노동자협동조합은 5년 정도 전에 청년 지원 전국대회에서 만났다. 여기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 본인이 출자해 운영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방식을 알았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경험이 있는 청년도 모두 참가하고 있었다.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 가는 그 분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다. 그 후, 노동자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인 일본노동자협동조합(워커스 코프)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팜플렛 디자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일과 이벤트 등을 통하여 교류가 깊어져, 2년 전 준회원으로 연합회에 가입하고 올 봄에는 정회원이 되었다.

21년도부터 연합회에 ‘다양한 배움과 성장 검토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논의는 이제부터지만 우리로서는 배우는 사람 스스로 시작하는 배움의 장소와, 일하면서 배워 갈 수 있는 장소를 전국으로 넓혀가고 싶다.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이벤트 등에 초대되는 기회도 많아져, 그곳에서 440Hz를 소개하면 “우리 아이가 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다. 우리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사는 거리에 440Hz 같은 장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테키센대학과 같은 장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등교 거부・은둔형 외톨이를 거쳐 440Hz를 만든 우리의 경험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이한 취업 지원이 아닌,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일하다’와 ‘배우다’를 연결하는 장소

중미 푸에르토리코의 카구아스시는, “에듀케이션 시티”라는 발상으로 도시를 만들고 있다. 배움은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케이크 만들기를 배우고 싶으면 제과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케이크 가게에 가면 케이크를 만드는 경험 많은 선생님이 있다. 공장에 가면 용접의 달인이, 영상 현장에 가면 전문 카메라맨이 있다. 왜 배움이 학교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고 에듀케이션 시티의 제창자는 생각한다.

사람이 일하는 장소는 동시에 배움의 장소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어느 지역이나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하다’와 ‘배우다’를 연결하는 새로운 장의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5 청년 주체의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 삼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효고현(兵庫県) **토요오카시**(豊岡市)

○ 취업 지원으로부터의 출발

효고현 토요오카시에 있는 타지마 지역 복지사업소는 2009년에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토요오카(이하, 서포스테 토요오카)'를 수탁한 이후 다양한 취업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마주해 왔다.
서포스테 토요오카에서는 상담과 직장 체험 등을 통해 반주(伴走)형의 취업 지원이나 직장에 대한 정착 지원을 실시한다.
개설 당시부터 중요시 해 온 것은, 상담자 개개인의 스킬을 높여가기 위한 장소와 지역 자원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관점이다.
2013년에는 취업 뿐만이 아닌 지역 젊은이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다가가는 지원을 목표로 '지역활동 지원센터 숲 학교 단단'을 개설. 2015년에는 생활 빈곤자 자립지원 사업, 2018년에는 은둔형 외톨이 상담창구와 사업을 넓혀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담자를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의 과제를 발견하고 지자체에 다양한 제안과 과제의 공유를 실시해 왔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쪽이 아닌, 지역을 지탱하는 일원이 될 수 있는 활동과 장소를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환경보전형 소규모 임업을 시작

지역자원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로 환경보전형의 소규모 임업 'Next Green 타지마(이하, NGT)'를 시작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지역의 에너지 순환방식을 다시 파악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에 더하여, 지역에서 실직한 사람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각에 응했기 때문이다.

당시 지역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효고현에 제안한 공공 직업훈련 '신에너지・환경 코스' 를 실시하고 있었다.

순환형 소규모 임업과 소수력 발전, 바이오디젤 연료에 대해 배우던 훈련생은 "지역을 위해 미래에 남을 산을 손질하는 일을 시작하고 싶다" 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의 황폐화를 우려하면서도 담당 인력부족을 이유로 포기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훈련생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산을 만들고 싶다" 는 생각과, 지역의 "물려받은 산을 소중히 하고 싶지만 우리만으로는 어렵다" 는 생각이 겹쳐져 2013년에 NGT가 시작되었다.



목공 제품들

사업 내용은 산에 작업 도로를 부설해 삼림과 대나무 숲을 정비하는 것 외에, 지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험목의 벌채를 실시한다.

또한, 간벌재를 가공한 목공품의 제작・판매 및 산과 임업에 관한 각종 이벤트도 함께 실시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삼림을 비롯한 지역의 자연가치를 전하게 되었다.

○ 다양한 멤버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사업개발 시점에 5명이었던 NGT는 현재 7명으로 동료가 늘었다. 서포스테 토요오카의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가한 설립 멤버 외에 자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I턴자, 숲 유치원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에 불타는 보육사, 산일과 육아에 힘쓰는 前피부관리사 등 다양한 배경의 멤버가 모여 있다.

처음에는 직업훈련으로 배운 삼림정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일하는 동료가 증가함에 따라 개개인이 하고 싶은 일이 연이어 생겨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삼림에서 채벌 체험하는 아이들



대나무 미끄럼틀에서 노는 아이들

현재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대처는 지역의 풍부한 삼림과 하천 등을 살린 자연 보육 및 환경교육 활동을 항시적으로 실시하는 '숲 유치원' 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육아를 하면서 일하는 네 아이의 엄마인 멤버가 삼림 정비 및 아이를 위한 자연체험 이벤트를 기획 운영하는 가운데 "이 훌륭한 자연환경을 살려 육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느껴,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그 생각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구상에 이끌려 토요오카시의 직원이나 대기업을 퇴직한 지역부흥 협력대원, 시내에서 일하는 보육사(현재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었다) 등이 잇달아 동참했다.

현재는 2022년도 본격 가동을 향해 주 1회 정도 부모와 자녀가 즐기는 야외 보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래에는 자연 보육과 목육(木育)을 위한 목공품 등을 제조하는 거점을 마련하고, 아이와 청소년이 자연을 접하면서 체험적인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

우리는 사업소에서 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서로 의견을 내고 그 생각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이 운영방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가진 힘을 활용하는 근로방식이라고 느끼지만 그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 시기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 제대로 논의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인 또한 취업하기 전에는 5년 정도 은둔해 있었지만 서포스테 토요오카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일하는 동료로 맞아주어 현재에는 소장의 자리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업소를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두' 안에는 사업을 통해 관련된 사람도,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포함된다.

일자리를 지역에서 창출하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여 보다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간다. 그러한 바텀업의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

6 이주해 온 젊은이들에 의한 공동 농업
- “좋은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좋은 일자리” -

에히메현(愛媛県) **세이요시**(西予市)

○ 도시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주

눈앞에 우와해(宇和海)가 펼쳐지고 바로 뒤에 돌담으로 쌓아올린 귤 산, 몇 안 되는 평지에 마을이 있는 세이요시 아케하마초 카리하마 지구—그런 시골을 기점으로 에히메현 내 각지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협동조합 무차차엔 그룹의 유한회사 텐포지루시[5].

아케하마초 카리하마 지구는 인구 750명(250세대) 정도로 신호등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 정말 과소한 한계 마을이다. 텐포지루시는 나를 포함한 직원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간사이권에서 이주해 온 현 이외 출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지역협동조합 무차차엔은 누구나 건강하고 장수하는 마을,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환경파괴를 수반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하여 진정한 에콜로지컬 라이프를 추구하고 마을 조성에 종사해 온 운동체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조직이나 개인과 연대하여 일자리 부흥에 실천해 왔다. 감귤 뿐만 아니라 치리멘(잔멸치)이나 진주 생산자도 무차차엔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사업 규모는 그룹 합산으로 약 10억엔. 생산자의 위탁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이익은 적지만, 적자도 나기 어려운 경영이 특징이다.

○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

5) 무차차엔의 차세대 생산자 그룹 텐포지루시는 에히메현 내 각지에서 농장을 갖고 야채와 과수, 감귤 유기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왜, 도시에서 자란 청년들이 편의점도 신호등도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오는 것일까?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활”과 “좋은 일자리” 즉,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좋은 일자리”란, 그 일을 통해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감정)과,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누군가가 기뻐해하고 감사 받는다는 느낌), 이 두 가지의 느낌이 있는 일이 “좋은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텐포지루시의 일에서는 구체적인 중점 포인트가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유기농업 생산, 둘째는 유기농산 가공품 제조, 세번째는 농가를 도우러 가는 일이다.

우선, 우리가 임하고 있는 유기농업 생산. 에히메현이라고 하면 역시 감귤 재배가 중심이지만, 우리와 같은 I턴 농업인은 현 외에서 농업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좋던 나쁘던 감귤 재배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감귤 뿐만 아니라 야채와 감귤 이외의 과수 등 연중 다양한 생산물을 유기로 재배하고 있다.



유기농산물과 직원



나무에 올라 수확하는 작업

둘째는 ‘유기 야채를 밑반찬으로’라는 콘셉트로 건조 야채, 말린 과일의 제조를 시작했다. 농업 생산은 아무래도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기 때문에 연중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세번째로는 특히 소중히 해 나가고 싶은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다. 이런 과소지역은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 의의로서 고령이나 후계자 부재의 농가를 돕고 있다.

이쪽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반대쪽에서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당을 받지만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상부상조의 관계성, 그런 교류가 "좋은 일자리"와 연결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다.

○ 농업은 계승산업

텐포지루시는 신규 취농자(I턴 취농자)의 모임이지만, 실제로 해보고 깨달은 것은 농업은 계승되어 가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농업은 경제적・산업적으로 정말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감귤류로 말하면 1년에 1회의 수확을 위해 연중 식물 생리에 맞춘 시기마다 작업을 한다. 하나의 공정에서 만약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그 1년이 엉망이 되고 1년 후까지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30회, 많아야 40회 정도밖에 각 시기의 작업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

동시에 농업이라는 것은 역시 토지의 조건, 기후의 특성 등을 대대로 계승하면서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부모나 할아버지 대, 그 또한 선조들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이어온 결과, 지금의 기술과 체계가 있다.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의 집합과 밭, 창고, 기계, 사람과의 관계, 그러한 것을 면면히 이어가는 그런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 군상극처럼 일하다

그렇다면 농업은 농가만의 일인가? 라고 물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신규 취농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왔다. 지식도 기술도 경험도, 집도 경트럭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고정관념도 없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농가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다는 유기농업을 어느 정도 대규

모로 하면 어떨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함께 협력하면서 일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원이 각 작물과 농장 등을 담당하고, 각각의 성수기에는 모두가 모여 수확 작업을 하거나 작물이 잡초에 파묻히면 모두 함께 그 작업을 돕기 위해 모이기도 한다. 개개인이 주역이 되어 때로는 조연을 대신하는, 그런 군상극처럼 일하는 방식을 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협동 노동이다.

○ 이해(利害)를 초월한 관계성의 안정감

무차차엔은 환경을 배려한 농업과 어업에 임하는 지역단체로, 지역 조성을 중심으로 기분좋게 살 수 있는 시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내가 이주해 온 지 15년 정도 되었지만 처음에는 시골전통과 풍습이 참 귀찮다는 생각을 했다. 지역행사 등에 어째서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느낀 것은 그러한 전통과 문화, 풍습이라는 것이 이해관계를 초월한 관계성에서 사실은 안정감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좋은 삶" 이 아닐까 느끼는 요즘이다. 착각일지도 모르지만(웃음).

○ "좋은 삶의 방식" 의 하나의 모델로

' "보람 있는 일과 매력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기였다.' 그렇게 말해 준 직원이 있었다. 텐포지루시의 기본은 대화를 통한 동료 만들기. "좋은 일자리" 와 "좋은 생활" 을 실천을 통해 날마다 동료와 논의하여, "좋은 삶의 방식" 을 목표로 하나의 모델로 제안해 가고 싶다. 이런 시골에서도 시골이기에 더욱 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것이 큰 파도가 되어, 삶의 방식으로서 새로운 하나의 사회적 가치관 같은 것이 된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생각한다.